

서울 주보

제2603호
2026년 3월 8일(가해)

사순 제3주일



입당송 | 시편 25(24), 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17, 3-7

화답송 | 시편 95(94), 1-2, 6-7, 11, 12, 72-9(◎ 72과 8L)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 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로마 5, 1-2, 5-8

복음환호송 | 요한 4, 42, 15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음 | 요한 4, 5-42(또는 4, 5-15, 19L-26, 39-40-42)

영성체송 | 요한 4, 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최정훈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말씀을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손을 들지 못하고 있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네, 가고는 싶은데... 엄마가 주일학교 끝나면 집에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웃음을 주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말을 듣지만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엉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은총(4.14 참조)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고,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주는, 문자 그대로의 ‘물’로 알아들었습니다.(4.11-12.15 참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채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른다면 행복하게 될 거야.” “네, 당신을 믿고 따르겠으니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과 친교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성공과 같

은 텃없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이기심이 낳은 독점욕, 지배욕,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 위에 세워지는 평화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불의에 대한 침묵과 갈등의 은폐로 이런 위선적 안정을 평화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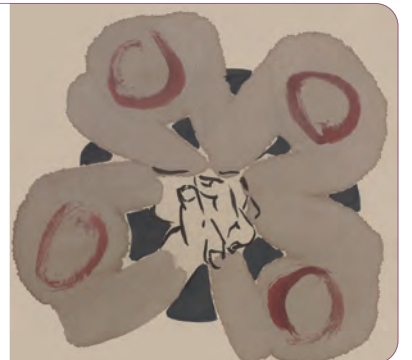
주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영적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4.15 참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첨예한 논쟁인 예배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4.19-20 참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몰이해 앞에서 불쾌해하지도 않으시고, 대화를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여, 다시 영과 진리에 대한 주제로 대화로 이끄셨습니다.(4.21-26 참조)

진리를 이해하는 데 더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의탁한다면,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로마 5.2 참조)

그림 해설

아침기도 |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을 지금의 내게로 불러와서, 저도 내 영혼이 알아먹을 때까지, 아니, 이성이 항복할 때까지 씌웁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축일 샘물이든, 영혼의 갈증을 적실 진리의 말씀이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분열의 땅에는 생명의 물이 절실히 보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아 기도손을 모으면, 우리도 문득 당신의 샘물이 피워내는 꽃봉오리를 닮았다 싶습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이번 달 말씀의 이삭은

'SBS 가톨릭 교우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회사 생활 와중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리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김지완 사비노 | SBS A&T 뉴스기술팀

이제야 시작된 하느님과의 대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온, 소위 말하는 '천주교 진골(?) 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성당은 제 삶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 왔고, 초등부 복사단을 시작으로 중·고등부 학생회장, 청년 전례단장까지 다양한 직무를 맡아 봉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불혹을 지나며, 믿음이 시간만큼 성숙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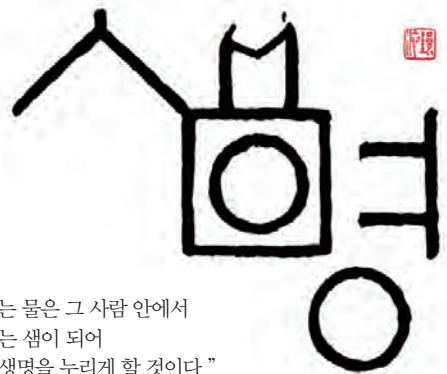
몇 년 전, 불교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친구로부터 표지가 해질 때까지 성경을 여러 차례 완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껍데기에 불과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미사에서 수동적으로 듣고 있던 독서와 복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걸모습만 신자였습니다.

두꺼운 성경을 곧바로 펼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어린이 만화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경 요약서를 탐독했고, 신부님께서 진행하시는 유튜브 성경 강의를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명화들도 감상하며, 말씀에 조금씩 친숙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밑판을 다지고 성경을 펼치자, 말씀은 제 삶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말을 거는 살아 있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비노야, 드디어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되었구나. 과거를 증명하지 말고, 오늘을 나와 함께 살아 보자."

하느님께서 이 작은 결심에 '과외'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회사 가톨릭 교우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는 바쁜 일상에서도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일상에 밀려 말씀을 놓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저도 하느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말씀을 펼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 성경에 친숙해지는 시간부터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주변에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경 공부 콘텐츠와 나눔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사편 119,105) 그 빛 앞에서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컷 묵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허욱 토마스모어 | 작가

K톨릭: 드라마 | 서울주보가 2026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코너 중 하나인 **K톨릭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드라마. 그 매력적인 서사일수록 우리는 더 세심한 식별을 필요로 합니다. 드라마가 제시하는 욕망의 문법, 선악의 구도, 관계의 방식이 복음의 언어와 어떻게 만나고 또 어긋나는지 이 칼럼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K드라마와 한국 사회 내 복음의 현 위치를 가능해 보세요!

드라마 속 환생 서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되묻다



박정아 율리아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여정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최근 눈길을 끄는 제목의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국민 배우 김혜자 씨와 손석구 배우가 부부로 등장하는 설정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주무대가 ‘천국’이라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주인공 해숙은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고 천국행 지하철에 탑니다. 끝없는 어둠의 지옥역을 지나 밝은 빛으로 가득한 천국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숙은 천국에 있으면서도 살아 있을 때의 상처와 아픔, 성격까지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다투고, 질투하며, 때로는 분노합니다. 본인조차 자신이 왜 천국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것은 드라마 속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라기보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환생’을 위한 정거장처럼 재현되는 지점입니다. 최근 많은 판타지 드라마에서 윤회와 환생은 자주 등장하는 설정입니다. 이들 드라마에서 인간은 여러 생을 거치며 스스로 완성되어 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렇기에 신(神)의 존재는 큰 비중 없이 등장하거나 때론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대중문화가 창작한 윤회적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재현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 윤회와 해탈을 긍정하는 응답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전통 종교의 가르침보다 개인적 위로와 치유, 자기 구원의 서사에 더 익숙해진 세속화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재미와 오락을 위한 허구적 이야기기에, “그저 드라마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타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보여주는 듯하면서도,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환생 서사에는 인간이 온갖 어려움이나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성장시킬 것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가톨릭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혼자서 완성해야 하는 자기 구원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 안에서 완성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계와의 사랑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Pygmalion)은 사랑에 희의를 품고 결코 결혼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조각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완벽한 여인의 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진 그는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말을 걸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기도합니다. “제 조각상을 닮은 여인을 제 짝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조각상이 사람이 되고 결국 그들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AI)과 감정을 교류하고 애착을 형성하거나 알고리즘이 구성한 맞춤형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AI와 유대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AI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나 감정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심리 현상,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AI 특유의 ‘아침과 ‘동조’ 현상 때문입니다. 되도록 좋은 말만 해주는 AI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로 여겨지고 이제 사용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복잡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 집니다. 나의 내밀한 모습을 알면서도 비난하지 않는, 언제나 긍정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정량적 데이터와 전산 논리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뿐입니다. 인간의 추론 능

력을 모방하고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연산 능력은 인간 정신의 광범위한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도덕적 분별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진정한 관계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적 이해 능력은 단순한 지식 정보를 넘어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고 관통합니다. 인간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보다 진리, 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개방성으로 살아가는 실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에 〈옛것과 새것〉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질병, 화해의 포용, 심지어 단순한 일물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데이터로만 작동하는 어떤 장치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험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경험들을 따라올 수 없다.”^(33쪽)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때로는 피곤함으로,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는 것은 그래도 결국 또 그 관계 안에서 싹트는 사랑입니다. 안락함과 풍요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은 넘어졌다 일어나고 타인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완전해집니다. 인간은 계산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양심의 가책, 사랑을 실천한 후의 따뜻한 마음,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환희를 느끼는 것.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WYD 봉사자 양성 현황 소개

WYD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참여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만큼, 기획·재무·전산·통번역·행사·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조직위부터 지역·지구·본당·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함께할 봉사자들이 대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단계적으로 봉사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는 기초연구팀 40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1기 준비 과정 봉사자 22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어 2025년 상반기에 2기 150여 명을 추가로 양성하였고, 현재도 장기 팀 봉사자를 모집하며 준비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봉사자들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로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대회 준비에 힘을 보태고, 2027년 본대회가 열리면 직접 기획·준비·실행의 주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봉사자들의 기초 양성 과정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동반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황 권고 문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함께 읽고, 시노드 여정에서 발전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봉사자들은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쌓아가는 동시에, 세계청년대회가 지닌 의미와 가치도 보다 풍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WYD 청년 연수



WYD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WYD에 대한 교구 전체 청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당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법을 익히며 영적 역량을 키우도록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정: 2025년 3월~12월 / 총 9회 진행 (1박 2일) / **장소:** 상반기(1박 2일, 성 앵베르 센터), 하반기(하루, 청년문화공간JU)

대상: 만 19세~39세 청년들

WYD 봉사자를 위한 성모의 밤과 친교 식사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240여 명의 WYD 봉사자들이 함께 성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봉사자 양성 교재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워크북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문헌을 기초로 2024년에 1차 준비 과정 봉사자 240명을 양성했는데, 그 양

성 과정을 참조하여 교구, 지구, 본당 차원에서 젊은이 사목을 하고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개발했습니다. 이 워크북으로 본당 차원에서도 WYD 봉사자를 양성하고 청년 사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그룹을 이뤄 이 교재에 따라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디오북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가톨릭성우교회 봉사자들의 동반 속에서 청년들이 직접 육성 녹음으로 오디오북을 발간했습니다.

〈2027 서울 WYD 기초문헌〉

WYD가 무엇이며, 시노드 및 시노달리타스와 관계는 어떠한지, 서울에서 WYD를 개최하는 것의 의의, 주제 성구에 대한 성찰 등등 2027 서울 WYD에 대해 폭넓은 기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목주기도 봉헌 운동
747일째
(2024-02-11부터)

실시간 봉헌 현황
348,709,951단
(달성률 34.87%)

자세한 내용은



초대교회사람들 | '한국 교회와 우리 문화 돌아보기'를 올해의 주제로 삼은 서울주보의 새로운 코너 '초대교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순교자나 성인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 교회와 함께했던 다양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코너입니다. K톨릭의 토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느껴보세요!

북경 메신저 김유산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연말마다 북경으로 떠나는 연행사 행차 속에는 으레 북경 교회로 갈 밀서를 전달하는 신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북경 주교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다시 답장을 받아오는 과정은 거의 첩보 영화 수준입니다.

김유산(金有山, 1761-1801)은 1798년과 1799년에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들고 북경에 갔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그는 관광하는 척 성당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1799년에 그는 다시 북경으로 편지를 들고 떠납니다. 천안 감옥에 갇혀 있던 이존창은 김유산에게 현금 15냥과 올이 가는 흰색 백세목과 겨울옷 한 벌을 푸른 보자기에 싸주면서 옷 속에 전달할 편지가 있으니 천주당 신부에게 잘 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편지는 비단에 싸서 가슴과 등 사이에 넣어 꿰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역졸을 돈으로 매수해서 서장관의 마부 구실을 얻어 사행 속에 스며 들었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김유산이 혼자 천주당 앞에서 안쪽을 기웃대자 문지기가 그를 내쫓았습니다. 김유산은 다급하게 손을 가슴에 대고 성호를 그었고, 또 입고 있던 겨울옷을 가리키며 문질렀지요. 조선 신자가 접선할 때 쓰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놀란 문지기가 태도를 바꾸자, 그는 편지가 든 옷을 벗어 문지기에게 건넵니다. 김유산은 출발 3일 전에 다시 찾아가 그 옷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옷 속에 북경 주교의 답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들은 편지 외에 세례 받을 때 쓰는 성유(聖油)와 성물 및 상본들도 가져왔습니다. 성유는 침엽수인 발삼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데, 주교만이 이 기름을 축

성할 수 있었고, 1년 밖에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1796년부터 1800년까지 매년 사행 때마다 반드시 가져왔습니다. 《사학정의》속 유관점의 공초에 나옵니다.

신유박해가 있고 10년 뒤인 1811년에는 이어진 요한이 10년만에 처음으로 북경에 편지를 들고 갑니다. 북경에 도착한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폐쇄된 성당 앞에서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실로 주교와 접촉할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때 문득 그는 담배가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 수입되었다는 사실과, 초기 천주교인들이 담배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담배 가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부적이 붙어있지 않는 담배 가게 하나를 발견하고, 마침내 그 집 주인이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리며 주교에게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해서, 극적으로 조선 교회와 연락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달한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신미년 백서입니다

이렇듯 위험을 무릅쓰고 북경과 한양 사이에 편지가 극적으로 오갔고, 성유와 성물 및 상본까지 오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숨겨 국경 검문소를 지나올 때 그들의 심장은 견잡을 수 없이 뛰었겠지요. 그 성유로 세례를 받았고, 상본 한 장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편지를 들고 그들은 끝없는 절망의 세월 속에서도 목자 잃은 양 떼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유산은 결국 붙잡혀 신유박해 때 참혹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소식

인사발령

성명	새임지
최광희 신부	휴양

김수창(야교보) 신부님 선종



우리 교구 소속 김수창(야교보) 신부님께서 지난 2월 23일(월)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36년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출생하여 1962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명수대(현, 흑석동)성당,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지도신부 겸 J.O.C 전국본부 지도신부, 왕십리·이문동성당, 교구 사목국장, 흥제동·명동·청담동성당, 절두산순교기념관 관장 겸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교구 내 성지 보존관리, 화양동·잠원동성당,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절두산순교기념관 및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겸 꾸르실로 지도신부로 사목하시다가 2003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2026년 2월 25일(수)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지도신부 겸 J.O.C 전국본부 지도신부, 왕십리·이문동성당, 교구 사목국장, 흥제동·명동·청담동성당, 절두산순교기념관 관장 겸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교구 내 성지 보존관리, 화양동·잠원동성당,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절두산순교기념관 및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겸 꾸르실로 지도신부로 사목하시다가 2003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2026년 2월 25일(수)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9년 3월 12일 강도영 마르코 신부(66세)
- 1944년 3월 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1981년 3월 15일 이용유 베네딕토 신부(36세)
- 1983년 3월 14일 박성중 프란치스코 신부(60세)
- 2013년 3월 12일 이계중 세례자요한 신부(91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3월 14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윤여선 개인전: 1전시실
 이권연구소 졸업전: 2전시실
 김중생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 6일(금)~15일(주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 1)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3월 10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 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 2) 3월 임신부와 태아 축복 미사**
 때, 곳: 3월 14일(토) 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 문의(신청): 02)727-2351(3월 10일(화)까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구글폼 신청)
- 3)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년 신자를 위한, '해들별 피정'**
 대상: 중년기 의미를 찾고자 하는 40세 이상의 신자
 때, 곳: 3월 28일(목) 9시~17시, 복사사파괴정의집(성북동)
 회비: 4만원(신청: 3월 13일까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구글폼 신청)
- 4)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대상: 행복한 부부생활 및 자연주기법에 관심 있는 자
 때: 4월 9일(목)~6월 11일(목) 20시~21시30분(7주간)
 강의방식: 온라인(zoom) / 회비: 부부 8만원, 개인 5만원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727-2351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3월 21일(토)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 문의: 02)318-3079 한미음향문화사살예방센터

민족화해위원회

- 1) 26평화의 바람 기행(57) 참가자 모집**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 / 회비: 7만원
 때, 곳: 3월 14일(토)~15일(주일), 파주·연천 접경지역(1박2일)
 문자신청: 010-4682-2412 폼발송 / 문의: 02)753-0815
- 2) 150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 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함흥교구 북청 본당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례식

대상: 주소지 서울, 2020년생 이후의 자녀가 있는 부모 (선착순 50명) / 신청: 2월 23일(월) 10시~3월 13일(금) 16시
 때: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4월 1일(수)~9월 30일(수) / 유아부 담당 신부 면담(4회 예정) · 세례식 10월 17일(토)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속
 문의: 02)727-2111 서울대교구 청소년교 유아부

환경사목위원회

- 1) 제8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3월 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 2) 제51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창조질서 보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로미사 및 수로식
 때: 4월 14일~5월 26일 매주(화) 19시~21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신청: 환경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s://eco.catholic.or.kr) / 마감: 3월 31일(화)까지

3) 제21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접수: 3월 18일(수)~5월 1일(금) / cbckcee@cbck.kr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명동대성당 영성 교육 프로그램 · 견진성사 · 사순 특강

- 1)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 문의: 010-5302-4593(문자)
 전례꽃꽂이: 매주(수·금) / 수강료: 7만5천원(재료비 별도)
- 2) 주교회 명동대성당 2026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3월 3일(화)~29일(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준비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 문의: 02)774-1784
 교육일정: 4월 12일~5월 17일 매주(주일) 13시30분~15시30분, 코스트홀(대면수업 / 6주간)
 견진성사: 5월 24일(주일) 오후 2시, 대성전
- 3) 주교회 명동대성당 2026년 사순 특강 안내**
 때, 곳: 3월 9일~23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3월 9일(월)	세대 간 소통 "인생, 본나의 신앙 메시지"	장명숙 (유튜버 밀라노나)
3월 16일(월)	교회 안에서의 소통 "명동살이 몇했가요?"	조성풍 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3월 23일(월)	가정 안에서의 소통 "사랑의 양상물"	정석, 고유경 (한국 ME대표 부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3월 9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명동)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2026년 서울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 모집

대상: 스카우트 대원 활동에 관심있는 학생(6~18세)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신청방법: https://naver.me/5cq7QsFP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3월 31일(화) 23시30분까지

온라인 가톨릭 교리학교

대상: 예비신자 교리 나눔봉사자, 교리교사
 교육기간: 4월~11월 / 회비: 8만원(3월 25일 접수마감)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속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 알리미 · 공문 게시판 참조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6 신규약 성경동독 회원 모집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1년 강역)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7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순례 피정: 3월 9일~23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6년 전반기 강좌 안내

접수기간: 2월 2일(월)~3월 2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 1) 명동 오전 정기간좌(정기간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 9일~6월 15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9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간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 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 2) 청년(2권), 직장인(3권) 성서못자리**
 때: 3월 11일~6월 1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11일 19시30분, 영성센터 B201호
 회비(교재 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2026 상반기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 문의: 02)727-2385, 6
 곳: 교구청별관 523호
 신청기간: 개강일 1주 전까지(학교별 신청 가능,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노르딕 걷기학교 (기초반) (4주)	4월 20일부터 매주(월) 10시30분~12시 / 회비: 6만원 건강을 위한 바른 걸음법 노르딕 워킹 교육
글씨학교 (12주)	3월 23일부터 매주(월) 14시~16시 / 회비: 15만원 나만의 성경 성구를 찾고 써보는 캘리그래피 교육
성경 봉독학교 (6주)	3월 24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 / 회비: 8만원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을 위한 스피치 교육
대화학교 (12주)	3월 25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 / 회비: 15만원 원활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사랑으로 듣고 말하기'교육
바오로학교 (12주)	3월 19일부터 매주(목) 14시~16시 / 회비: 15만원 사도 바오로의 선교 발자취 교육 및 성지순례 준비
인생학교 (6주)	3월 20일부터 매주(금) 14시~16시 / 회비: 8만원 "상실 너머 발견하는 삶의 의미"- 상실 이후, 마음과 일상이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교육



인준단체 알림

모임

'십자가의 신비'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회) / 문의: 010-2724-4819
 때, 곳: 3월 16일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군중후원회 사순 일일 피정

특강: 이성운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3월 9일(월) 10시, 국군중앙유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원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3차주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2435-3737

때, 곳: 3월 21일(토) 12시30분~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점심 무료 제공)

2026년 DMZ 평화의 길(도보 순례)

대상: 초3 이상 누구나(80명) / 회비: 8만원, 15만원
 때: 2박 4월 10일(금)~12일(주일), 1박 5월 2일(토)~3일(주일)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음악치유 피정과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3월 31일~4월 14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2만원 / 문의: 010-6655-1165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우리 모두가 급히 힘쓸 바이나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3월 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 10일 박현민 신부 3월 17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완독 4월 17일(금)~25일(토), 6월 19일(금)~27일(토)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하부내포 / 문의: 010-3807-1784

4월 18일(토)	서지골-도양골-삼터(미사)	출발: 7시, 가톨릭회관 후문(명동)
5월 16일(토)	신시도(새만금)-산막골(미사)-불부골-지석리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3월 21일(토)~22일(주일)
영신수련 2박3일 침묵 피정	3월 27일~29일, 4월 10일~12일
청년 주말 침묵 피정	3월 28일(토)~29일(주일)
폼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상시

피아골 피정-수도원 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5월 22일~23일	대전	4월 17일~18일
수도원순례	4월 21일~24일 / 유덕현 아빠스		
홍성남 신부	아키타 5월 25일~29일, 11월 9일~13일, 북해도 8월 24일~27일		
마르첼로 형제와 산티아고	6월 6일~25일		

3월 토요 낮 치유 피정-묵주 천송이 기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 봉사회, 02)874-6346 삼성산 성령 수녀회

1) 3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강사: 이성진 신부(서울대교구)
 때: 3월 14일(토) 12시~17시30분

2) 묵주 천송이 기도: 3월 16일(월) 12시30분~17시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3월 27일~29일·5월 9일~11일·5월 15일~17일·6월 19일~21일·7월 3일~5일·7월 10일~12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18일~21일·5월 29일~6월 1일·6월 4일~7일·6월 12일~14일·9월 4일~7일·9월 11일~14일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제주성지순례 3월 29일~31일·4월 11일~14일·5월 16일~19일, 엠마오 떠나는 4월 자연순례 4월 6일~8일·4월 7일~9일·4월 16일~18일·4월 20일~22일·4월 24일~26일·4월 28일~30일(추자도포함), 올레길·자연순례 5월 2일~4일·5월 8일~10일·5월 11일~1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전례-탐방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4월 24일~26일	춘천 15곳-성대동성당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명동)
5월 1일~4일	부산 8곳, 마산 6곳	
5월 18일~20일	대구 17곳	
6월 5일~6일	백령도 / 성 김대건 신부님 불잡하신 날	
6월 27일~30일	제주도 / 차귀도-추자도(아외 미사)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4월 10일 10시~15시30분
치유침묵기도 피정(성체입은 감정치유)	3월 20일(금)~22일(주일)
사순 피정	3월 19일(목) 10시~15시30분
시편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4월 24일(금)~26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 30일(토)~31일(주일), 6월 27일(토)~28일(주일)
2박3일	6월 12일(금)~14일(주일), 8월 5일(수)~7일(금)
3박4일	3월 12일(목)~15일(주일), 4월 23일(목)~26일(주일)
4박5일	5월 1일(금)~5일(화), 7월 22일(수)~26일(주일)
8박9일	3월 19일(목)~27일(금), 4월 10일(금)~18일(토)
40일	4월 6일(월)~5월 15일(금)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3월 23일~4월 27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565-3473

3월 23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이정순 수녀
3월 30일(월)	세속정신 끊어기 2	이영준 신부
4월 6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이상국 신부
4월 13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최미경 수녀
4월 20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김명숙 수녀
4월 27일(월)	봉헌의 생활화	이순옥 수녀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치유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장영자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기도모임

대상: 20세~40세 미혼 여성 / 문의: 010-9353-1773
 때: 둘째·넷째주(금) 20시30분~21시30분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 20일~23일·4월 17일~20일·5월 15일~18일·6월 19일~22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속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4월 10일(금)~12일(주일), 스승예수 피정의 집(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원양로 816)
 4월 2일(월)까지 접수(1인1실) / 문의: 02)2135-9398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구반장·사목위원)
 때: 4월 11일~13일·4월 28일~30일·5월 23일~25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부부 나들이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당 20만원(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 9일(토) 14시~10일(주일) 17시, 아론의 집
 계좌: 신한 131-022-652844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교육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 홈페이지: www.biblemove.com
 사무엘(상), 사무엘(하), 서간(갈라~테살)
 때, 곳: (월·화·수·주일) 20시, 비대면 / 02)824-4363

예수회 영신수련 아카데미(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주제: 영신수련의 이해와 '기도의 실제'
 권오면 신부 / 문의(접수): 02)3276-7799
 때: 3월~6월 매월 둘째·넷째주(금) 14시(8회 강의)
 곳: 예수회센터 103호 / 개강: 3월 13일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난 삶을 성찰,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대상: 60세 이상 / 문의: 010-7451-9707(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6일~25일·4월 20일~29일·5월 18일~27일·6월 15일~24일(10일), 강원도 홍천(서울 출발)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추가 모집: 3월 31일(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or.kr)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1) '영신수련 맛들이기' 기도실습 10주 강좌
강사: 정규환 신부
때: 3월 9일부터 매주(월) 13시30분~16시
2) '음악, 기도가 되다' 성음악 감상
때: 3월~7월 매월 둘째주(토) 14시~16시 / 강사: 이보나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수업내용: 검정고시, 대입준비, 멘토링PG 지원·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영상·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일본어회화·연극반 등)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www.jju.or.kr)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12기 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9184-6280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내용: 일반독서, 인문독서, 영적독서(각 과정 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3월 19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말씀학교 무료 강좌·미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때, 곳: 10시~12시30분,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거룩한 예수님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매주(목) / 김분도 수사 문의: 010-6287-9753
모세오경	5월 15일 개강, 매주(수) 수업 양은철 신부 / 문의: 010-9333-6260

'기도하며 기도를 배움시다' 성체조배 봄 영성학교

때: 3월 18일~4월 15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18일	박원주 신부	3월 25일	이기양 신부
4월 1일	정재건 신부	4월 8일	임병헌 신부
4월 15일	'성체조배 이렇게 해보세요' 강의-교구 회장, 파견 미사-대표 담당 사제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및 비대면(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현장 강의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구정모 신부
	비블리오 드라마	김영근 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서명원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모집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월1회 바오로선교회 장애인 미사 봉사
연습: 매주(월) 19시, 약수역 근처 / 010-2686-0185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문의: 010-2633-2025
활동: (주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3월 22일(주일) 17시 / 명동대성당(단체모집란)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 참조

미사

글라렉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3월 16일(월) 11시, 글라렉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새천년복음화학교 3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3월 19일(목) 낮 12시, 문화관 2층 소성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 미사

때: 둘째주(토) 3월 14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7142-051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3월 13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3월 30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평화요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요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6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02)2241-7841
때, 곳: 3월 28일(토) 오전 11시, 평화요원(내) 야외 미사장 /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안내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roller바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counseling-center.catholic.ac.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2026년 부활 평화마켓(가톨릭 플라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때, 곳: 3월 21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 1층 카페 / 문의: 02)338-7832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 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국가지원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 해당기관
----------	---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역 소재) 직원 모집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요셉의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668-8432
병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후 지원서 접수 / 분야: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1종보통·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3월 18일(목)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쑥고개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873-233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3월 15일(주일) 14시~17시	카라의 들(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서울 수녀원	010-8563-6875
전교가르멜수녀회	3월 22일(주일) 14시	본원(통의동,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010-7523-0956 / 인스타그램: carmelitas197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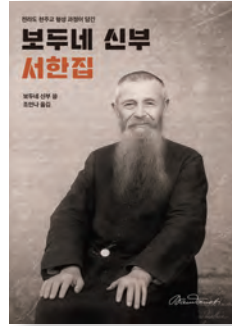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계속되는 교회의 창조**

스티븐 베반스 지음
 흐름출판사 | 736쪽 | 5만원
 문의: 063)287-1231

선교학은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생동하는 신앙과 문화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하느님과 교회, 세계 문화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교회는 동사이다.”라는 통찰을 통해 세례 받은 공동체가 어떤 활동으로 교회를 드러내는지를 묻는다. 가톨릭교회의 선교 신학과 교회론을 역사적으로 밝히며, 선교학의 진보를 보여준다.



신간
모두네 신부 서한집

모두네 신부 지음
 흐름출판사 | 392쪽 | 2만원
 문의: 063)287-1231

전주교구는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함께한 특별한 곳으로, 박해마다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모두네 신부가 입국한 1885년은 정부 차원의 탄압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언제든 박해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책은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모두네 신부의 서한을 날짜순으로 엮어, 부임지 동정과 선교 활동, 성무 집행 결과 등을 담았다.



신간
**순교자
 흥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권은정 지음
 흐름출판사 | 300쪽 | 2만5천원
 문의: 063)287-1231

평양교구는 1927년 설정되어 1943년 독립교구가 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분단 속에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1943년 6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흥용호 주교는 ‘일어나 가자(Surgite Eamus)’를 표어로 교구민을 이끌었다. 그는 해방 후 성당 재건을 추진했으나 1949년 피랍되었고, 이후 생애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신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신간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정애경 글·김춘자 그림
 성서와함께 | 36쪽 | 6천원
 문의: 02)822-0125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며 함께 걷는 길임을 전한다. 은총의 사순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의 삶과 형제자매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 사랑에 다가가도록 이끈다.



방송
**2026
 사순 특강 프로그램**

시청시간: 첫방송 2월 22일(주일) 10시10분 · 본방송 매주(주일) 10시10분 · 재방송 (주일) 22시10분 · (월) 9시50분 · (금) 24시 · 19시30분, (토) 16시
 문의: 02)2270-2114

사순 시기를 맞아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준비한 5편의 특강이 매주 방송된다. 1강 마르코복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2월 22일, 양해룡 신부), 2강 이 또한 지나가리라(3월 1일, 방종우 신부), 3강 하느님의 때는 다릅니다(3월 8일, 김재덕 신부), 4강 죄의 익숙함(3월 15일, 황창연 신부), 5강 과달루페의 성모(3월 22일, 황창연 신부)



방송
**KBS 공사 창립 대기희
 성물**

시청시간: 3월 3일 · 4일 · 5일, 12일 22시
 채널: KBS 1TV,
 KBS다큐 유튜브@KBSDocumentary
 문의: 02)781-1000

KBS 공사 창립 대기희 <성물> 지난 방송에서는 토리노의 성의(聖衣)와 한 시각장애인 수녀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다뤘다. 12일(목) 밤 10시에는 성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믿음이 지니는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며,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부부가 믿음을 통해 아픔을 위로받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거행되고, 여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 방문 신청 및 요일별 마감시간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9시·10시·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삼일절·선거일·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에서 정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한식·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일시/장소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레자 또는 예비세레자(1년 이내 세레예정) 초 2~5학년 남아

·문의 및 지원 : QR코드 접속 ☞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대상 : 1994년생~2007년생 남녀 천주교 신자
·활동 : 일요일 오후 7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연습 : 일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지원방법 : 3/15(일)까지 입단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오디션 : 3/22(일) 예정 ※상세 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문의 : mdsc_eli@naver.com

◎ 명동대성당 아모르봉사단 단원 모집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안내 및 상설고해소 봉사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
(주일미사 안내봉사는 명동교적 신자에 한함)
※1961년생~1995년생, 신착순 0명
·접수방법 : 3/21(토)까지 입단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상세 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문의 : amagicqueena@naver.com Q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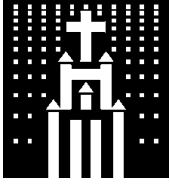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08-2882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총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흥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토 이시악(이시악)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24	봉헌 : 342, 217, 340	성체 : 158, 153, 502	파견 : 122
-------	----------	--------------------	--------------------	----------

《 축 세례 》

3/8(일) 13시 30분에 세례 예식 미사가 있습니다. 본 미사는 새 영세자와 대부모 가족들에 한해 입당 가능합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3/8(일) 오전 11시 소성당

● 2026년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3/ 9(월)	<세대 간 소통> “인생, 논나의 신앙 레시퍼” 장명숙 (안젤라메리치) -밀라논나-

● 새 영세자 첫 고 해

·일시/장소 : 3/10(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미사 봉헌 장소 변경 》

교구 행사 관계로 3월 11일(수) 오후 7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합니다.

● 십자가의 길 : 3월 13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부활 집중 판공성사

날 짜	시 간	장 소
3월 29일(일)	10:00~20:00	상설고해소 (영성센터 1층 / 옛 계성여고)
3월 30일(월)	11:00~20:00	
3월 31일(화)		
4월 1일(수)		

※3/30(월)은 성직자·수도자 및 모든 신자를 위한 고해성사로 진행

※상설고해소 휴무 : 4/2(목)~4/6(일)

※상설고해소 재개 : 4/7(화) 11:00부터

※명동교적신자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

● 2026년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장소 : 3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집결지 : 낮 12시 30분까지 성모동산 집결 후 이동

·대 상 : 명동 레지오 마리아 전 단원

·준비물 : 목주, 각 Pr. 단기 지참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넓게 보면 인간은 어떤 처지에서건 나름대로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통이란 것이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느님 현존을 체험한다. 따라서 고통 없이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고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을 이해할 줄도 모른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中)

고통이 어째서 은총일까요? 고통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은총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많은 은총으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엔 감사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가득한 삶이 은총입니다.

● 2026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5월 24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12일 ~ 5월 17일 (매 주일) 6주간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6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신자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함)

☞2026년 1월 새 영세자까지

·교리장소 : 포스트홀 (문화관 2층)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① 현장 접수 : 3월 8일(주일) / 성당마당 부스

오전 10시~오후 5시

② 방문 접수 : 3월 3일(화) ~ 3월 29일(주일)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구비서류 :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 가능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23-3/1).....45,562,400
- 사순 제 2 주일 헌금.....38,344,750
- 감사헌금 (2/23-3/1).....5,020,000
- 광안젤라 / 김 라파엘 / 김 발렌티노 / 김 베네딕타 / 김 빅토리아
- 김 카타리나 / 박 루도비코 / 박 루시아 / 박 신나아 / 백 안젤로
- 신 루시아 / 심 알베르토 / 안 마카엘라 / 엄 테클라 / 이 라베리노
- 이 마카엘라 / 이 카타리나 / 이 할레나 / 임 사무엘 / 장 프란체스카
- 전 마리안나 / 전 앙베르라우렌시오 / 천 테클라 / 한 마리아
- 홍 베로니카 / 홍 아셀라 / 익명(2)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평일미사	월	07:00, 18:00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07:00, 18:00, 19: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성지미사	토	07:00	Sun.	08:30 - 08:50		
	월-토	10:00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